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열 뿔로 묘사되는 열 왕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됩니다(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3절의 이유에 해당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

열 왕들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합니다(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본문은 이 싸움의 결과를 미리 선언합니다.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은 어린 양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 19장 11-21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9-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는 어린양 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그리는 동시에 그 전까지는 짐승의 세력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계 19장의 ‘어린양과 짐승의 전쟁’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그리고 있지만 이는 어느 한 시대에만 발생할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진행된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벌어진 용과 아이 사이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2) 하늘에서 벌어지는 용과 미가엘의 전쟁 그리고 3) 용과 여자와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음녀의 운명과 정체

본문 15절은 음녀의 정체를 언급합니다(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 17장 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음녀가 열국과 족속을 그 휘하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짐승 집단 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16절,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는 지금까지 짐승의 등 위를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음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열 뿔이 짐승과 함께 음녀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짐승이 음녀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대로 일곱 머리가 활동할 때는 음녀가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다음으로 열 뿔이 활동하면서 음녀가 아니라 여덟째 머리인 짐승이 그 중심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음녀의 철저한 멸망을 실감있게 묘사합니다(‘미워하다’; ‘벌거벗게 하다’; ‘살을 먹을 것이다’; ‘불로 사를 것이다’). 그러나, 17절에서 반전의 말씀이 나타납니다(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모든 일들, 즉 짐승과 음녀의 갈등 그리고 음녀의 심판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자이고 그들을 조종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억제시키고 분열시켜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신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음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를 상징주의자들(무천년주의)은 ‘로마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언급한대로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를 뜻하기 때문입니다(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 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18:10,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8:14,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바벨론과 로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비도덕과 성전 파괴, 우상 숭배와 교회의 박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은 짐승과 음녀의 모든 활동과 갈등 그들의 최후의 멸망까지도 이미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공중 권세를 다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묵상한대로 우리가 어떠한 해석적 방법을 따르든 할지라도 어린양과 짐승의 전쟁은 미래에만 이루어질 현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동기가 됩니다. 또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안 이상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비록 우리의 육신까지는 유혹하고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는 손 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가까울 수록 악의 영들과 같이 분열하고 자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한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히 10:23-25,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미국 교회, 신학교, 한인이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 기관을 위한 기도:** 보고타 콜롬비아개혁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